

남은 일주일 범주류·호남표심 결집 최대 변수

민주 원내대표 경선도 '단일화'?

“지역 주자 김동철·우윤근 조율 필요” 여론

김한길-이용섭 대결 압축 민주 대표 경선 전망

강 사퇴 이후 '反김한길' 얼마나 뭉칠지 주목 김 후보 “감동·명분 없는 단일화” 의미 축소

민주통합당 5·4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선 김기정 의원(북구갑)이 28일 후보직을 전격 사퇴함에 따라 민주당 당권을 놓고 비주류의 김한길 후보와 범주류의 이용섭 후보 간 정면 승부가 펼쳐지게 됐다.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당권 경쟁의 핵심 변수는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 여부로 집약될 수 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김한길-이용

섭 후보의 '1대 1' 구도가 형성된 그 자체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자 구도에서 벗어남에 따라, 당내의 반 김한길 전선의 결집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 후보 측에서는 전당대회까지 1주일 남았다는 점에서 범주류와 호남 표심의 결집이 이뤄진다면 극적인 역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

다. 특히, 강기정 후보의 지지 세력이 반 김한길 성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단일화 효과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호남의 정치력 복원을 요구하는 지역 민심의 흐름이 강하다는 점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강 후보가 사퇴하면서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단일화가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았지만 맞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상당한 추격전이 펼쳐질 것”이라며 “특히, 범주류와 호남 표심의 결집이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한길 후보 측에서는 이용

섭 후보와의 맞대결 구도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단일화가 절차적인 측면은 물론 정치적 명분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별다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강 후보의 전격적인 사퇴로 인해 결과적으로 단일화가 이뤄진 것 아니냐”며 “명분도 감동도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별다른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범주류와 호남 표심의 결집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가 범주류와 호남 표심을 결집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약하다는 것이다.

특히, 호남 정치권은 물론 범주류와 중도 진영에서의 김 후보에 대한 지지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관

세 흐름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번 단일화가 2% 부족할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강기정 의원이 전격 사퇴하면서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등 감동의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두 후보 모두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광주 시장 출마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등 정치적 무게감이 떨어진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1주일의 시간이 남았다는 점에서 관세는 아직까지 유동적일 수 있다”며 “이용섭 후보가 어떠한 정치적 결단으로 호남 표심과 범주류 진영의 결집을 가져올 수 있느냐가 막판 변수”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제는 호남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다.

일단, 정치권 전반적으로 '단일화'에 대한 피로도가 커지는 점에서 후보 출마 선언 이전에 지역 주자들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강기정, 이용섭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섰지만, 단일화가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너지 효과가 반감된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상처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예정인 김동철, 우윤근 의원이 출마 이후 단일화를 앞서 상호 조율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우윤근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 경선에서 단일화 효과는 크지 않다”며 “김동철 의원과 만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철 의원은 “비대위원이어서 원내대표 출마에 대한 입장을 말하지 못했지만,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초부터는 적극적으로 뛰겠다”며 원내대표 도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통합당 당명 다시 '민주당'으로 완전국민경선제 포기

민주통합당이 '민주당'으로 다시 이름을 바꾼다. 또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 당원·비당원을 구분 없는 완전국민경선제를 포기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당원참여를 의무화한 국민참여경선제만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삼야에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명칭 변경을 거쳤다. 전신인 새천년민주당은 2005년 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했고, 2008년 2월 통합민주당과 합당하며 '통합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채택했다.

2010년 손학규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잠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으나 2011년 12월 시민통합당·한국노총·시민사회와 통합을 결정하며 명칭을 '민주통합당'으로 다시 바꿨다. 다만, 약칭으로 '민주당'이라고 불려왔다. 결국, 이 이름도 1년 반만 사용됐으며 앞으로는 옛 이름이었던 '민주당'으로 돌아간다.

민주당은 작년 대선 후보 선출시 당원과 비당원을 구분하지 않는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했다.

또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의 경우 매년 다른 선거인단 구성 방식을 결정해왔다. 이런 방안은 오는 29일 당무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되며 내달 4일 전당대회에서 확정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한길·이용섭 민주당통합당 5·4전당대회 당대표 후보가 28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광명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지역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인사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이날 후보를 사퇴한 강기정 후보는 두 후보가 단상에 오르는 모습을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절대강자 없는' 민주 최고위원 경선

신경민·양승조 우세 전망 속 유성엽(호남)·조경태(영남) 입성 여부 관심

민주당 대표 경선에 가려 있던 최고위원 경선이 의외의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모두 4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경선에는 7명의 후보가 뛰고 있는 가운데 절대 강자 없는 '죽음의 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신경민, 양승조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두 명의 티켓을 놓고 우원식, 안민석, 유성엽, 조경태, 윤호중 후보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진영에서는 단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호남의 유성엽(전북 정읍) 후보와 영남의 조경태(부산 사하) 후

보의 최고위원 입성 여부는 지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호남 유일의 최고위원 주자인 유성엽은 민주당 지도부에 호남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확보돼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유 후보 측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 표심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며 “호남 주자를 키워달

라”며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

조경태 후보의 경우, 지난 광주·전남지역 합동연설회 이후 지역 표심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관측이다.

부산에서 3선을 이뤘음에도 그동안 당직에서 철저히 배제당하는 등 민주당 계파정치 의 희생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지세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 후보 측 관계자는 “지역 표심이 당내에서 차별을 당했던 조 후보 쪽으로 기울고 있다”며 “특히 역사의 고비마다 불의에 참지 않았던 광주 정신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 지명직 최고위원 호남·강원서 1명씩 임명

내달 당직개편...이상일 대변인직 내놓을 듯

새누리당이 다음달 원내대표 경선을 전후로 지난 2월부터 석달 가까이 공석이었던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는 등 큰 폭의 당직 개편을 단행한다.

황우여 대표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지는 내달 중순을 기점으로, 선출직 최고위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보직이 차례로 교체돼 새 진용을 갖출 전망이다.

황 대표는 28일 “원내대표 경선에 즈음해 당에 새로운 기풍을 세우고 힘차게 일할 수 있는 새 진용을 갖추려 한다”며 “당직 개편의 폭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는 호남과 강원 출신에서 각각 1명씩 임명하기로 결정됐다. 당에서는 지난 대선 때 당의 호남 지지율이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한 점 등을 고려해 최고위원 2석 모두 호남 출신으로 임명하려 했으나, 새 정부 인사에서 호남 못지않게 ‘소외감’을 느낀 강원

지역에도 한자리를 주기로 했다.

자금·조직 등 당의 살림살이를 책임질 사무총장에는 수도권 출신으로 3선 이상의 중량감 있는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수도권 출신이 검토되는 이유는 원내대표 경선 후보 조합인 이주영-장윤석, 최경환-외한 대부분의 주요 보직이 차례로 교체돼 새 진용을 갖출 전망이다.

공동대변인 가운데는 지난해 대선 등을 거치며 피로가 누적된 이상일 대변인이 물러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당의 입장을 발 빠르게 정리해 내보내야 하는 자리인 만큼 굳이 ‘언론인 이력’에 얽매이지 않고, ‘정무 감각’을 갖춘 인물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www.semenergy.co.kr / greenpw.co.kr 태양광 R.P.S사업부

“햇빛 재테크” 소용량(10~30kw)태양광 발전사업 40kw 이상 대용량 설치 가능

희망찬 노후를 설계하세요!

태양광 RPS발전사업이란?
사업주께서 건물(옥상) 또는 대지에 발전사업 설비용량에 따른 적정한 금액을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시공하여 생산된 신재생에너지(전기)를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하여 판매하는 제도

태양광 발전사업자 수익금	(은행 예치 대비 태양광 설치 시 약4.5배 이상 기대)
년 480만(예상수익)	1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400,000원 예상
년 960만(예상수익)	2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800,000원 예상
년 1440만(예상수익)	3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1,200,000원 예상

※인증서 판매가격:입찰을통하여 결정

태양광주택발전(주택용) 설치후 효과 자부담 550 ~680만원
기존 전기료의 약 80% 절감효과
설치비용은 1년거치 5년상환제로 결제가능(농협특화사업) 3개월 무이자가능(cnh할부)
※ 3kw용량의 발전설치시 월평균 약300~400kw의 전력이 생산가능하고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욱 절감 됩니다.

(주)셈에너지 그린파워 광주총판 TEL.1577-8905 019-624-2371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49-31F

매 매

→ 대 478㎡, 건1475㎡, 2004년 신축
→ 6층건물, 엘리베이터 2대
→ 매매가 14억 5천만원
→ 분할매매 가능

목포, 2호광장 사거리 구, 맹수 한의원 건물

임 매

→ 6층건물
→ 6층 고급주택, 옥상 광고탑
→ 병/의원, 약국, 교회, 커피숍
체인점, 편의점, 식당, 학원 등

상담문의 011-611-9525 010-4667-9300

부동산경매

- ▶반토막 난 부동산! 지금이 찬스!
- ▶노후 대책은 부동산 경매로!
- ▶경매비법 배우면서 투자!
- ▶단독/공동/소액투자 가능!
- ▶낙찰물건 실전 사례 교육!
- ▶1인1물건 추천

■강의기간 : 3개월, 주1회
■강의시간 : 매주 금요일(저녁7:30~9:30) 토요일(오후5:00~7:00)
■강의장소 : 광주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강 의 료 : 개인 지도 1,100만원

엘피엘/특수물건

예약상담 H. 010-3605-5000

(주)오천경매